

# 38 <sup>호</sup>

---

##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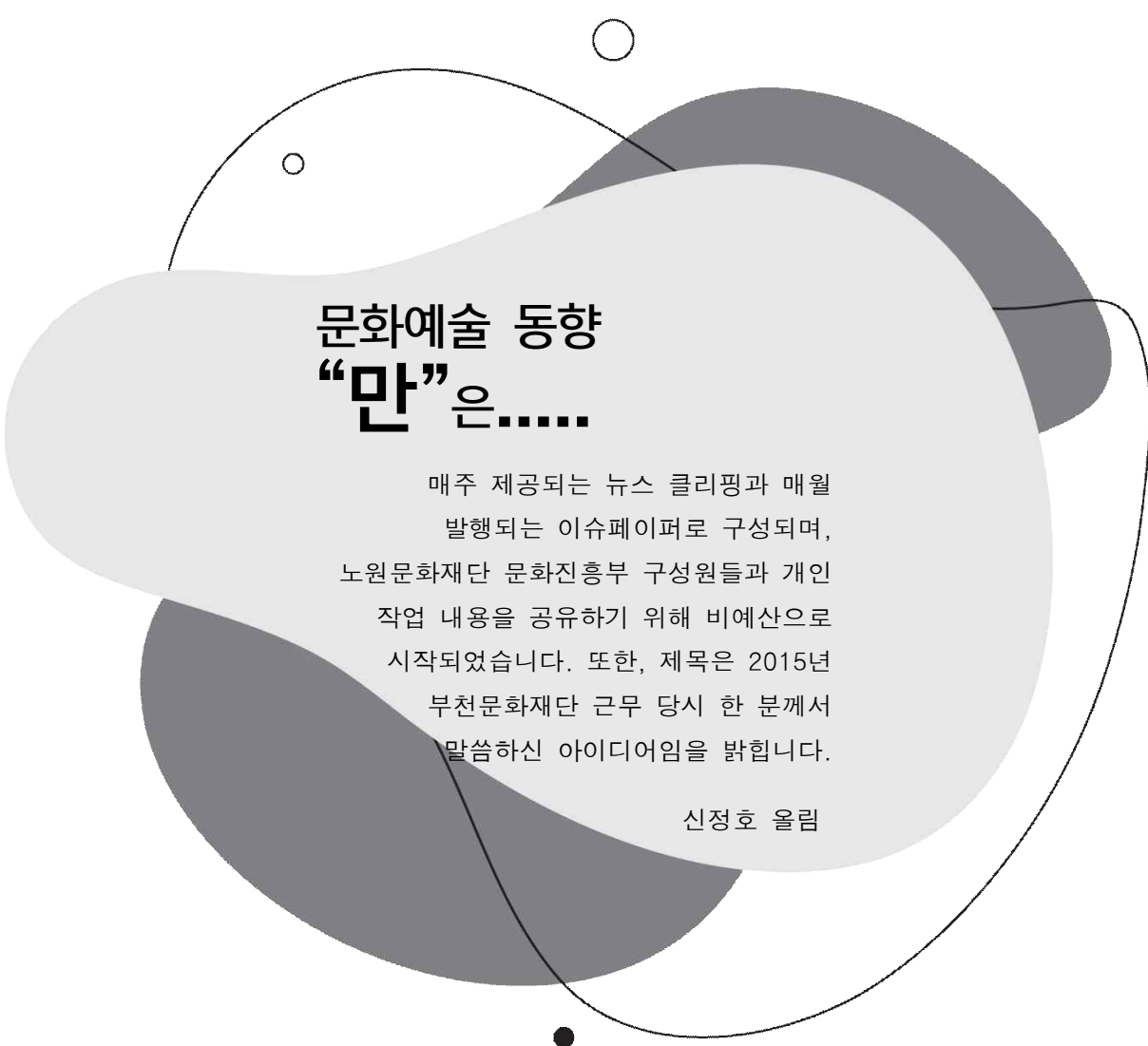
2025.12.01.

---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



##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 주요목차

---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1
(제37호) AI에 쫓긴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4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7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10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13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16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19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22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25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28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 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31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34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37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40
(제24호) K컬처 3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43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46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49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52
(제20호) 문화예술 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55

---

## 주요목차

---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58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61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64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67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70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73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76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79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82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85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87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89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91
(제06호) 타겟플랫폼·우려속공연시장·성장·국제미술시장·위축, 1인가구·중·저소득문화복지·고민·갈등·자세	93
(제05호) 초개·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자·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96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98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00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02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적 중단 위기	104

---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취약한 창작지원(3,677억 중 130억)과 중앙집중 재정 구조로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 간 예산 격차, 선택적 기금의 중앙 편중, 문화시설 운영난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으며, 기후위기 외면, 청년 이탈, 로컬 기반 약화 등 과제도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재정 자율성과 안정적 지역 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창작지원 취약·재정 중앙의존 지속…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시급
  - 기초예술 창작지원 ‘130억의 현실’…“3,677억 중 130억만 창작지원, 지금 바뀌어야 한다”(서울뉴스통신 25.11.24.)
    - 복권·체육기금 3,677억 중 창작지원 130억, 영국 ACE처럼 확대·일반회계 5,000억 증액 촉구
  - “지방재정의 안정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세무사신문 25.11.28.)
    - 독일·일본 사례로 지방재정 자율성·공동체·신세원 개발의 필요성 강조
- 지역마다 예산 온도차…문화·콘텐츠 기반 확충 필요
  - 사회복지 예산 쏠림에 문화예술 공간 ‘텅텅’(제주매일 25.11.25.)
    - 사회복지 예산 쏠림 속 제주도 문화예술예산이 15% 삭감되자, 도의회 ‘거꾸로 도정’과 시책 부재 질타
  - 부산문화예술지원 예산 100억 시대 눈앞(국제신문 25.11.25.)
    - 부산 문화예술지원 예산 95억으로 증액, 2027년 100억 목표. 다년지원 확대·신규 6개 사업 신설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순천시, 905억 규모 전략펀드 조성(뉴스1 25.11.29.)
    - 순천시가 모태펀드와 함께 905억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지역·유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
- K-콘텐츠 기후 침묵, OECD 경고…위기 속 환경 감수성 전환 필요
  - “세계적 영향력 K-드라마, 기후위기는 외면”…해외의 지적(에너지경제신문, 25.11.25.)
    - 핀란드 LUT대 연구팀이 K-드라마 60편(1135시간)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언급은 4시간에 불과
  - 한국 영화·드라마 기후위기 반영 ‘낙제점’…151편 중 3.9%만 반영(중앙일보, 25.11.24.)
    - 한국 영화·드라마 151편 중 기후위기 반영작은 6편(3.9%)에 그쳐 ‘낙제점’ 수준
  - OECD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오염은 지구 환경위기… 통합 정책 없이는 대응 불가능”(SDG뉴스, 25.11.27.)
    - OECD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오염은 연결된 삼중위기… 2050년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최대 요인”
  - 쓰레기에서 예술로…환경이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KiN 25.11.24.)
    - 폐캔·폐목재 설치미술 등 친환경 재료를 쓴 환경의제 예술이 시장 가치로 부상
- 지역에서 걷고 중앙이 쓰는 구조…기금 환원과 공공미술 관리 책임 강화 촉구
  - 지역에서 걷어 중앙에서 쓴다-선택적 기금 제도의 모순(문화오늘 25.11.24.)
    - 선택적 기금이 중앙에 집중돼 제도 취지를 훼손 지역 환원과 지역문화 기반 활용으로 전환 필요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공공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추진(문화오늘 25.11.24.)
    -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훼손·방치를 막기 위해 정기조사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 지방소멸, 숫자만으론 못 막는다…기금·외국인 대책 한계
  -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이제 의미 없다(충청투데이, 25.11.24.)
    - 지방소멸기금 상위 10곳 평균 집행률 80.99%에도 6곳 인구 감소폭 확대…집행 중심 평가 한계
  - 외국인 늘려도 지역경제 안 살아났다…내국인 빠진 지역엔 효과 ‘미미’(주간조선, 25.11.24.)
    - 외국인 258만명(5%)으로 늘었지만, 내국인 감소 지역엔 경제 효과 미미
  - “청년작가 공예품 드려요”… 예술가 지원효과(문화일보, 25.11.21.)
    - 부산 북구 고향사랑기부제에 청년작가 공예품 도입해 예술·지역경제 상생 추진
- 저출생·학령인구 급감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보육 인프라 재편 전략 필요
  - 학령인구 감소세…내년 전북 8개 학교 사라진다(전북도민일보, 25.11.27.)
    - 학령인구 감소로 전북 내년 8개교 폐교, 최근 5년 22곳 문 닫고 2029년 학생 18.8% 감소 전망
  - 학령인구 감소에…공립 유치원도 ‘줄폐원’(KBS뉴스 25.11.25.)
    - 저출생 여파로 대구 공립 병설유치원 내년 14곳 폐원, 3~5세 인구 5년 새 2만 명 감소
- 청년 떠난 지역, 로컬 실험으로 다시 채운다…청년몰 쇠퇴 속 골목·유휴공간 재생 확산
  - 청년 떠난 미로예술시장, 남은 건 불 꺼진 점포뿐(원주투데이 25.11.17.)
    - 창의 아이템으로 주목받던 청년몰이 지원 종료 후 73곳서 17곳으로 급감하며 쇠퇴
  - 작은 변화 만들어가는 로컬 창업가들…서울 골목 선택한 이유는(이데일리, 25.11.24.)
    - 로컬인서울이 장충동 막걸리 ‘우리예술과 노원 공릉 ‘낙하주의’ 등 골목 창업을 지원 강화
  - ‘로컬’에 빠진 기획자, 지역 청년 ‘모일 이유’를 만든다(오마이뉴스 25.11.25.)
    - 유휴공간 리모델링 팝업 운영과 지역 음식 재해석 프로젝트 등으로 청년 참여형 로컬 실험을 확산
- 수도권 집중 속 지역 스토리 소멸…로컬 브랜딩과 일상형 여가 플랫폼으로 회복 전략 필요
  - 지역의 스토리, 지역의 이미지 소멸 위기 막는 새로운 가치로(부산일보, 25.11.27.)
    - 수도권 집중으로 부울경 인구 2052년 23.7% 감소 전망 속, 관창아마을 등 로컬브랜딩이 해법주목
  - 안으로만 쏠리는 여가 소비…성수동 같은 ‘플랫폼’ 필요(충청투데이, 25.11.26.)
    - 대전에서 여가 소비가 백화점·실내 중심으로 쏠리면서, 거리 중심의 ‘일상형 여가 플랫폼’ 필요성이 커져

- 문화도시 성과 재점검과 아특법 연장 촉구…선택과 집중, 국비 확대가 관건
  - ‘문화도시 4년 차 점검표’…수원시의회, 성과 없는 사업 구조조정 예고(전자신문 25.11.26.)
  - 성과 미흡한 문화도시 사업은 구조조정, 150억 사업은 핵심 거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
  - 아특법 연장 요구 확산…광주시, 국회토론회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해야”(브릿지경제, 25.11. 2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종료 3년 앞두고 광주시, 법 연장·국비 확대 요구
- 잇따른 공공 문화시설 건립…지역 문화거점 확충 속 예산·타당성 논란 교차
  - “원주 문화예술의 새 지평!” 원주시립미술관 착공(내외뉴스통신 25.11.24.)
  - 원주시는 총 214억 원을 투입해 시립미술관을 11월 27일 착공하고, 2027년 개관 목표
  - 화성예술의전당 내년 1월 문 연다…동탄에 새 문화 거점 탄생(경기신문, 25.11.24.)
  - 화성예술의전당이 내년 1월 동탄2신도시에 개관, 대공연장·야외무대로 새 문화 거점 조성.
  - 194억 투입 광명아트센터…‘예산·입지 적정성’ 도마(Btv news, 25.11.26.)
  - 광명시 194억 원 아트센터 건립을 두고 예산·입지 적정성 논란이 시의회에서 제기
- 지방 문화시설 확충 가속 속, 낮은 수지율과 인력난…‘지속가능성’에 경고음
  - 청주시 문화예술시설마다 ‘적자 투성이’(충청타임즈 25.11.26.)
  - 청주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의 경영수지가 16~52%에 그치며 운영 부실 우려가 제기
  - 공립미술관 전복에 추가 설립될까…전문인력·운영 한계 ‘과제’(전북일보, 25.11.25.)
  - 전북 남원 순창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착수. 180억·212억 투입 계획이나 인력·운영 한계
- 폐산업 유휴시설의 문화전환, 지역 랜드마크로 전략화 시도
  - 버려진 냉동창고가 지역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연합뉴스 25.11.23.)
  - 울산 21년 6월 개관 후 장생포 냉동창고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해 4년간 64만명 방문
  - 대구교도소 이전 터에 복합문화공간 ‘달성 아레나’ 들어선다(朝鮮日報 25.11.23.)
  - 대구교도소 이전 터에 3,500억 투입해 공연장·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 ‘달성 아레나’ 조성 추진
- 도시 발전 속 역사공간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지속적 노력 필요
  - 근대의 기억을 미래 자산으로…통영 원도심, 문화·예술 도시로 다시 서다(해양레저신문 25.11.26.)
  -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에 150억 투입…8개 동 복원·문화공간화로 체류형 관광 전환
  -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종묘도 ‘센트럴 팰리스’?… 고층 개발 대안은(한국일보 25.11.26.)
  - 종묘 앞 고층 개발에 건축계가 우려를 제기하며, 5대궁 문화유산지구 지정과 지하개발·옹적률 이양 등 대안 제시
- 지역재생, 주민소통과 공동체 신뢰가 성패 가른다…시민자산화 실험의 성과와 한계
  - “지역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쌓은 신뢰는 성공의 필수 조건”(부산일보 25.11. 24.)
  - 클리블랜드 주민 협의로 디자인 가이드 마련, 개발·보존 균형 달성
  - 미완의 프로젝트 시민자산화, 시흥 월곶(통영신문, 25.11. 27.)
  - 공유지 재생·주민소유 모델 도전했으나 코로나로 키즈카페·상점 폐업…미완의 실험
- 제도권 문화예술교육 20년 평가와 기초 단위 활성화 과제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인천일보, 25.11.24.)
  - 인천문화재단과 4개 구 문화재단이 협력해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 중
  - 20년을 맞이하는 제도권 문화예술교육을 돌아보며 - 회고와 전망(문화정책리뷰, 25.11.27.)
  - 문화예술교육 20년 제도 확산은 성과였지만 중앙 주도·공급 중심 한계와 분권 과제가 남아
- 꿈의 지형이 바뀐다, 10대 진로와 문화예술 경험의 재발견
  - “저는 의사 안 할건데요”…요즘 10대를 꺾었다는 ‘직업’(한국경제 25.11.27.)
  - 고교생 희망직업 1위 교사 7.6%, 생명과학자·연구원 3.7%로 급등…가수·크리에이터도 상위권 유지
  - CJ도너스캠프, 2025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성료… 청소년 창작 역량 ‘빛났다’(중앙이코노미뉴스 25.11.18.)
  - 영상·음악·공연·요리 4개 부문 창작, 15팀 전문가 코칭, 상영회·뮤지컬·팝업 레스토랑 운영
- ‘팔길이 원칙’ 내세운 민간 주도 문화정책 전환, 위원회 독립성 제도화가 성패 좌우
  - “간섭 없는 지원”이 공허한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데일리안 25.11.24.)
  - ‘팔길이 원칙’을 내세워 민간 주도 문화정책 전환을 시도, 위원회 독립성과 비간섭 원칙의 제도화 관건
- 국악·K-컬처, 사다리 없는 정책서 ‘성장 구조’ 재설계 필요
  - “지속 가능한 국악으로”…문체부, 업계와 ‘국악문화산업 진흥 방안’ 논의(헤럴드경제 25.11.24.)
  - 문체부 국악계와 만나 국악진흥법 기본계획과 관광·창업·디지털콘텐츠 연계 방안을 논의
  - 전태수의 ‘웹 3.0’ 이야기…‘K-컬처’ 정책에만 없는 한 가지(연합뉴스 25.11.24.)
  - K-컬처는 정책 사다리 부재로 성장 경로가 단절돼 있으며, 금융·교육·제작·유통 연계 전략이 시급
  - 윤명희 도의원 “K-문학 페스티벌, 첫해부터 과도한 예산… 단계적 확대 필요”(BBS NEWS, 25.11.25.)
  - 전남도 ‘K-문학 페스티벌’에 도비 5억 원 편성되자, 도의회가 과도한 예산과 성급한 국제행사 추진
- 수도권 편중 속에서도 지역은 창작·유통 확대와 역사 뮤지컬 성공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
  - ⑤ “팬들은 전국에 있지만”…무대는 수도권에만 있었다(전북일보 25.11.29.)
  - 수도권 공연 76%, 전북 1%로 격차 고착…지속적 지역·다년지원 필요
  - 내년부터 ‘경기 공연예술 어워드’…우수 작품 발굴·유통 나선다(서울경제, 25.11.28.)

- 12월 G-ARTS 컨퍼런스 개최...26년 공연예술 어워즈·마켓 도입해 창작·유통 선순환 구축 추진
- “지역이 곧 장르”...아산·영월 등 뮤지컬로 브랜딩하는 역사 (데일리안, 25.11.29.)
  - 아산 ‘성웅’영월 ‘단종 1698’ 등 지역 고유 역사 뮤지컬 전석 매진·110% 점유율로 지역브랜딩 성과 입증
- 국내 미술시장 침체 속 공공미술관 확충...아트페어 성장과 지역 국립미술관 유치 전략 가속
  - 국내 미술시장 6000억대 유지...아트페어만 증가세(뉴시스 25.11.28.)
    - 2024 국내 미술시장 6,151억...화랑·경매 감소, 아트페어만 17.6% 증가
  -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속도 높이는 광주시...미술계와 소통 나서(노컷뉴스, 25.11.27.)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본격화...법 개정·정부 예산 반영으로 호남권 첫 국립미술관 추진 가속
- 예산 축소 시대, 마을공동체 법제와 주민예술로 지역문화 복원
  - 하남시 생활예술 예산 반토막 박선미 의원, “지역예술 생태계 붕괴” 질타(모니이투데이 25.11.27.)
    - 생활예술 예산이 1년 새 50% 삭감되자, 시의회가 지역예술 생태계 붕괴와 보여주기식 행정을 강하게 비판
  -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충남일보 25.11. 25.)
    - 마스크 대란 대응 사례 들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전국 216개 조례 한계 지적
  - 주민이 주인공이 된 기록의 현장...그렇게 예술이 된 마을(전북도민일보 25.11. 25.)
    - 전북 소멸위기 10개 마을 주민 구술을 예술로 기록해 책 공연·영상으로 확장하는 마을문학 프로젝트 진행
- 도서관 및 제3공간을 잇는 공론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문화 지속가능성 강화
  - 지식의 허브이자 지역문제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돼야(경상일보 25.11.25.)
    - 울산 도서관 246곳, 1관 평균 방문 23만·대출 13만권...지역 연계로 학습·교류 공간 확대 필요
  - “도시 자체가 곧 문화”...지역 문화 지속가능성을 말하다(영남일보 25.11.26.)
    - 사업 단기화·예산 부족 속 예술인 이탈 가속...대구 포럼서 민관협력·제3공간 구축 등 해법 제시
- 문화복지·인프라 투자 늘었지만 체감은 제자리...지역 격차와 소비 침체 해소가 관건
  - 방한일 의원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늘고 체감은 제자리”(시대일보, 25.11. 28.)
    -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109억→139억으로 늘었지만, 최근 2년간 불용액만 25억 원에 달해 체감 효과 부족
  - 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달성아레나로는 부족하다(시대일보, 25.11. 28.)
    - 달성아레나 3,500억 투자에도 2025년 대구 공연 티켓 판매 10%↓...공연시장 침체 뚜렷
  - 제주 문화여가시설 등지역 접근률 평균 76.6% vs 읍면 3%대...추차·우도 도서관 접근 0%로 격차 심각
- 문화재단의 획일화 탈피와 재정·운영 구조개혁이 지역 지속성의 관건
  - [문화산책] 문화적 도시재생 유감(경기일보 25.11.24.)
    - 문화재단 도시재생의 주체로 성장, 중앙 지침·평가 획일화로 사업이 동질화돼 자율성 강화가 필요
  - ‘무산 위기’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내년 출연금 재심사...원안 가결(뉴스1 25.11.27.)
    - 대구 중구의회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16.6억 원을 재심사 끝에 원안 가결
  - 군산문화관광재단 구조적 개선과 재정 효율화 방안(투데이안, 25.11.27.)
    - 조직 정체성·재정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업 통합·자체수입·국비집행 개선을 촉구
-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 접근성 개선과 책임 있는 문화행정 시급
  - “공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관객이든 같아”... 장애인 관객의 경험 보장해야(스토리오브서울, 25.11. 25.)
    - 장애인 공연 관람 비율이 1% 미만에 그쳐, 문화예술 향유 접근성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
  - 창원문화재단 ‘장애인 비하 발언’ 지연숙 진해아트홀 관장에 경징계(경남도민일보, 25.11. 23.)
    - 장애인 관람 방해 논란 인사에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노조와 장애인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
- 경험·로컬 중심 소비 확산...체험 콘텐츠와 청년 창작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 동력으로 부상
  - 2026 핵심 소비트렌드 ‘압축소비’(리테일톡, 25.11. 26.)
    - 2026 소비트렌드 ‘압축소비’...핵심 가치와 체험에만 선별 소비
  - 어반플레이, ‘에디션 서촌’ 통해 로컬 비즈니스의 새 가능성을 열다(동아일보, 25.11. 28.)
    - 5일간 2만6000명 방문 ‘경험 중심’ 콘텐츠로 상권 활력 불어넣어
  - 닫힌 점포를 예술로 열다...청년 그래픽이 만든 또 다른 대구 동성로(아시아투데이, 25.11. 25.)
    - 청년·대학생 150명이 빈 점포를 그래픽 전시로 재해석해 동성로 골목 활성화 시도
- 과학기술·문화예술 융합 시대, 분산된 지식재산 행정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과학기술 + 문화예술 시대, 분산된 ‘지식재산 업무’ 통합해야!.. 김명신 아시아변리사회 명예회장(IPDaily, 25.11.24.)
    - 과학기술·문화예술 시대에 지식재산처,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분산된 지식재산 업무 통합 관리 필요
- 기타사항으로 공공기관 책임행정 전환을 위한 복종 의무 폐지와 출연금 구조 재점검 등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SBS, 25.11. 25.)
    -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추진...위법 지휘 거부권 도입 및 휴직·징계 강화
  - 정재웅 강원도의원, “출연기관 출연금 재검토 필요”지적(글로벌뉴스통신, 25.11.26)
    - 강원 공공기관 잉여금이 출연금의 최대 87%까지 발생...출연금 구조 재검토 필요